

NEWS LETTER

2021년 8월 09일 Vol. 415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 위한 팔빙수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5일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안심외래를 방문해 팔빙수 교환권을 전달했다. 이번 이벤트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권범선 일산병원장을 비롯해 최기석 행정처장, 능지 스님, 진영숙 간호부장이 함께 참여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병원 밖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으니 시원하게 드시고 힘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안심외래, 워크스루 검사소를 운영하며 지역 감염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두동 성당,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간식 전달

일산동구 마두동성당에서는 지난 8월 3일 오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무더위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 간식과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마두동성당 수녀님과 신부님이 직접 병원을 찾았으며, 최기석 행정처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능지 스님, 진영숙 간호부장이 함께 했다. 지원된 물품은 바나나와 아이스크림, 초코파이, 음료수, 과자 등 다양한 간식이 준비됐으며, 병원은 폭염 속에서 무더위에 애쓰는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마두동성당 신부님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권범선 병원장은 “찌는 듯한 폭염경보 속에서 각종 보호복으로 중무장한 의료진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에 힘을 내어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소속직원을 위한 상품권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협력업체인 유니에스, 현대C&R, 씨마가드, 케이텍에서는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원내 편의시설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상품권은 식객촌, 바पुर리, 퀴즈노스 등 원내에 입점해 있는 편의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리

동국대학교병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무사히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감사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최0순 환자 보호자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보험도 없어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 주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김0길 환자

건강을 잃다 보니 삶이 허무하고 저의 생활도 너무 지쳐있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고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글로 대신하며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0옥 환자

저는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와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들의 도움으로 잘 치료받고 퇴원하게 되어 감사하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